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formation Activity before Migration
on Information Utility of Marriage Migration Females

최 송 식** · 장 익 진*** · 김 현 속****

Choi, Song-Sik · Chang, Ik-Chin · Kim, Hyun-Suk

Ⅰ 목 차 Ⅰ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해석
- V. 결론

본 논문은 이주여성의 결혼전 정보활동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배우자 및 한국생활 정보수준과 인과관계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전 정보활동은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활동은 배우자의 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활동은 배우자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 이 연구는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과제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J01101)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신저자(illsuk94@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08. 11. 10, 심사 기간(1, 2차) : 2008. 11. 17~12. 16, 게재 확정일 : 2008. 12. 18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결혼전 정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한국정보수준을 높여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유용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결혼전에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컨텐츠개발이 필요하다.

□ 주제어: 정보활동, 정보수준, 정보유용성

This study invested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ctivity on Korea lives and relations of information activity, information levels of husband and Korea lives and information utility. Subjects were 251 marriage migration females lived Busan and GyeongNam. Data were analyz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path analysis.

In path analysis, information activity variables had effect on information utility directly, also affected information utility through information levels of Korea lives indirectly. And Information activity affected information utility through information levels of husband but did not affect information utility through information levels of husband.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s Korea lives, information of Korea lives is very important matter more than husband information. But marriage migration females did not have good informations. And Information activity in their country had not useful for their adaptation. According to this result, to help their adaptation, we have to develop various information support policy such as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ntents and work more on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their country.

□ Keywords: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information levels of husband and Korea lives, information utility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¹⁾이 유입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1990년에만 해도 결혼이주로 한국에 온 여성의 수는 619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현재 약 3만 명의 이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입되었다(통계청, 2007).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구성내용도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결혼이주의 흐름에서 초기에는 주로 통일교를 통해 온 일본여성과 비록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동족으로 인식된 중국 조선족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들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출신국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층배경 등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계층적 배경이 다양화되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모습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출신국별로 적응하는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양순미, 2006: 양옥경 외, 2007: 김현숙, 2007), 빠른 시일내에 주류사회로 동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화되거나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화보다는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주류사회로 편입되는 속도도 빠른 모습도 보이고 있다(양옥경 외, 2007). 또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으로 더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발견된다(설동훈 외, 2008).

이렇듯 결혼이주여성의 적응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내부구성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결혼하여 들어오기 전 한국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어느 정도 한국을 이해하고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스크의 발달로 이전보다 타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고, 이와 더불어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해 미리 접할 기회가 많아졌기(김이선 외, 2006)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간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 이주경험이 있는 주변사람들로부터 이주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들어오는 사례도 증가했기(박경태 외, 1999) 때문이기도 하다.

1)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 '외국인 주부'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2006년 4월 정부가 관련정책을 발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법, 제도적으로 '이민'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최근의 '이민'은 이동 후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는 과거의 이민과 달리 출신국과 유입국의 상황에 따라 정착여부가 결정되는 고정되지 않은 형태를 띤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는 노동이주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의 결혼방식에 따라 접하는 정보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고 한다(설동훈 외, 2005).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 성립되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글교육은 물론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생활정보 등을 미리 접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우자와 한국의 정보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혼경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결혼전 이주태도도 배우자와 한국에 대한 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혼전에 이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인 경우 이주국에 대한 정보활동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며(김현숙, 2007), 그 결과 배우자나 한국에 대한 정보수준을 높일 것이다.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면, 브로커를 만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실제 한국사회의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함으로써 이주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듯 과거에 비해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언어 문제와 더불어, 일상생활, 가족구조, 젠더구조 등 본국과 다른 문화적 차이(민경자, 2003; 김이선 외, 2006), 사회화된 편견(김민정 외, 2006), 경제적 어려움(강원도 여성정책개발실, 2001), 사회적 고립(민경자, 2003), 국적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내에서 인격적 무시와 가정폭력 등 가족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병리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며(양옥경 외, 2007),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의 어려움은 한국사회가 아직 다문화²⁾를 수용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김혜순, 2008).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의 문제³⁾가 결혼전 이들이 수집한 정보와 실제 현실간의 간격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부적응의 문제를 다른 시각

2) 최근 외국인 거주민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인종/다민족화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이외에도 여러 나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에 대해 포용적이며 상호 존중적인 정책, 태도, 문화로의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사회를 견인해 가는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3) 이주자의 적응의 개념이 새로운 문화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정되게 지내는 것(구차순, 2007)이라면, 부적응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적용하면, 언어,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이웃 등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적합한 직업능력의 부재와 취업기회의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선거 등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행사에서 소외 등이 부적응의 사례에 해당된다.

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을 서둘렀을 경우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컨대 결혼전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그러한 정보가 다양하고, 빠르게 전달된다면 이주후 이들의 적응문제는 보다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유입 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수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결혼이주와 이주경로

한국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규모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만 하더라도 619명에 불과했으나, 16년 만에 무려 50배가 증가하여 2007년 한해만 하더라도 3만명 이상이 유입되었다(통계청, 2007).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도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 등 매우 다변화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들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은 이들의 이주를 추동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는 노동이주의 일환으로(이혜경, 2005) 세계화 이후 국가간 불균형 현상속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배출과 흡입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설동훈, 1996). 선진국에서의 가정부, 보조, 간병인, 엔터테이너 등 서비스산업에서의 여성수요의 증가(Sassen, 1998; Hochschild, 1997)와 함께,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시장의 남녀성비의 불균형으로 결혼시장의 교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신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김현숙, 2007). 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은 자국의 가난과 실업, 그리고 가부장적 체제 등의 요인들이 여성들의 해외이주를 추동했다. 결국 이러한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흡입과 배출 요인이 작용하면서 여성이주가 증가했다. 그런데 결혼이주에

는 이러한 국가간의 흡입배출 요인 이외에도 결혼의 본질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샬스비(Sarsby, 1983:155-202)에 의하면, 결혼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제3세계 여성들은 자신의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배우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력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주의 과정에는 다양한 이주경로가 존재한다(윤형숙, 2003; 이해경, 2005; 설동훈 외, 2005). 어떤 나라에서 특정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의지할만한 사회적 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주경로는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점차 사회구조를 창출하고, 때면 새로운 이주자들은 이 경로를 이용하여, 이는 다시 해외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확대시킨다(설동훈, 1996:49). 하지만 결혼이주경로는 모든 결혼이주여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주자의 국적, 학력에 따라 이주하는 주된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적에 따라 유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유입배경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경제적 교류를 지적하고 있다(Wang, 2002). 즉, 송출국과 유입국 사이를 잇는 사회적 다리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다리를 건너 온 것이다(설동훈, 1996). 결국 국가와 국가간 어떠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를 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국적은 언어, 피부색 등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주국과 문화적 배경이 차이가 날 경우 결혼이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송출국과 이주국 간의 문화적 거리가 존재한다. 또한 결혼이주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흐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여성들이 그보다 못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력에 따라 결혼이주경로가 다르다. 학력은 개인의 인적 자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결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김용학, 2004: 30). 동원될 연결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더 폭넓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더 쉽게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결혼이주의 경우 배우자나 이주국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결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혼이주경로는 국적에 따라 학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데, 국가간 사회적 교류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의 연결망이 구조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결혼이주경로는 국가간 교류, 이주자의 자원, 그리고 그에 따른 경로에 의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경로는 계속 확장되며, 이주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한편 결혼이주의 흐름은 결혼이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혼이주경로도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통일교 등 종교단체가 주선하여, 한국의 농촌총각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이 추진되었다⁴⁾. 1990년대 들어서면서 통일교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때 한국과 정식 수교가 수립되기 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홍기혜, 2000:56).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과 농촌 총각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결혼을 주선하는 전문적인 브로커도 생겨났다⁵⁾. 하지만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결혼, 위장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조선족 여성의 대안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다른 지역들과의 결혼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사업의 근거지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해 갔으며, 1998년 혼인알선기관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결혼중개업체가 크게 증가했으며(이혜경, 2005), 현재 결혼이주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단체, 결혼중개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결혼경로도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설동훈 외(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49.3%는 친구, 선후배,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한국인 남편을 만났으며, 타인의 소개없이 직접 만남은 16.1%, 종교단체는 15.6%, 결혼중개업체는 13.4% 등 주로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제결혼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실제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보다 '아는 사람'을 통한 결혼방식이 더 높아지는 추세이다⁶⁾. 국가와 국가 간 결혼경로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지자체와 지자체,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국가와 국가간의 결혼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해외로 나간 친구, 친척들이 국제결혼에이전시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에 있는 친구나 동생에게 초국가적인 결혼을 주선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였다(Wang and Chang, 2003).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전지구적 정보통신의 연결망이 인종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채팅이나 인터넷 펜팔을 통해 '인터넷 로맨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Constable, 2003; 김현미, 2006). 결혼이주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경로가 점차 다양화되고

4) 통일교는 아담이 실패한 이상적인 참가정을 만들고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적인 이유'를 내걸고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농촌총각과 일본여성의 국제결혼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농촌총각과 결혼한 일본여성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사회적 배경이 좋은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총각의 낮은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에 실망하게 되었고, 한일간의 결혼은 점차 어렵게 되었다.

5)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는 크게 ①중국에서 국제결혼 알선업 자격증이 있는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②자격증이 없는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③주로 영사관 주변에서 민박집을 하는 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세가지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05:43)

6) 물론 '아는 사람의 소개'가 실제로 결혼중개업체를 연결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비율이 낮게 조사된 결과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결혼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일 것이라는 인식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있으며, 이러한 결혼이주경로는 이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추가이동을 야기하며, 그 결과 이주경로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결혼이주경로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정보활동

낯선 곳으로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이주할 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주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전에 어떠한 정보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과 ‘한국’과의 관계나 문화교류에 따라 한국을 접하는 기회나 정보의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 김이선 외(2006:57)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 시기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 입국한 여성들은 당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입국한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결혼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태국이나 필리핀 이주여성의 경우는 베트남처럼 한류나 한국기업의 영향은 거의 없었고, 통일교를 통해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교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권유받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때 들었던 내용은 한국이나 한국 남성에 대한 긍정적 설명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 조선족 여성은 언어나 문화면에서 한국과 가장 친숙하고, 한-중 수교 이후 실질적으로 교류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중국 언론에서 한국 소식을 제한적으로 접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학교나 언론 등 중국사회의 주류 통로를 통해서였고, 특히 위성텔레비전의 보급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국가별로 한국과의 관계와 문화교류에 따라 한국을 접하는 기회가 달랐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라디오와 같은 어떠한 의도하지 않은 수동적인 정보매체를 통해 한국을 인지하는 정도였다.

한편 정보는 매우 주관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Dervin & Nilan, 1986:3~33),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객관적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보다는 비록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이제환 외, 2004).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미 이전에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웃사람들로부터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다(김이선 외, 2006). 주변

이주자들이 비록 한정된 정보를 전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했을 때 겪게 되는 문제점과, 이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이 주변이주자로부터 얻은 한국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주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에게 위험부담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있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양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혹은 바로 그러한 정보의 홍수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를 선택하기 위한 메타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자신의 사회적 관계내에서 찾는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이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결혼을 중재할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다. 이들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과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이들의 이주 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결혼중재자를 통해 습득한 정보가 이주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막연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주후 적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설동훈 외, 2005). 베트남 이주여성의 경우(하밍타잉, 2005) 한국은 물론 한국 남성에게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맞선도 보고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가지만, 이 과정에서 통역자의 설명에 의한 정보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의 전부이고, 한국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2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에서 적응을 위한 정보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혼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으로 이주 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례는 민간인을 통한 결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결혼과정에서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통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이들이 전달하는 한국에 대한 지식은 형식적인 내용들로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김이선 외, 2006). 게다가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과 이미 결혼한 친구나 친척 역시 대화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모습만 전해 주기 때문에 한국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TV 드라마나 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드라마는 현실을 곧바로 반영하기보다 왜곡된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드라마 속에 비취지는 한국이나 한국 남성에게 대한 이미지를 여과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온 이주여성들은 현실의 한국과 한국 남성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3. 정보수준과 정보유용성

이주여성들은 결혼 전에 한국이나 배우자에 관해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결혼전 한국에 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들은 결혼전 한국에 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결혼중개자로부터 한국에 관한 정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통일교를 통한 결혼사례(윤형숙, 2003:7)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통일교를 통해 한국에 관해 듣기 전에 한국을 북한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많으며, 교회나 결혼정보업체나 다른 통로를 통해 한국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로 알게 되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일종의 코리아안 드림 같은 것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는 것도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통일교 교육을 통해 받는 교육이 한국에 대해 정보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통일교 교육은 통일교 교리 이외에 한국문화, 한국어 철자, 인사말이나 존댓말, 음식조리법, 인사법 등을 배우게 된다(김이선 외, 2006)고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의 경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약 54%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간단한 한글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문화에 절교육, 생활정보교육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었다(이순형, 2007).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교육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언어나 음식 등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이 적응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순형, 2007:300~301).

한편 결혼과정에서 이주여성들은 결혼중개자로부터 한국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이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느냐의 문제는 국제결혼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교적 가까운 사람의 소개로 결혼한 경우 이주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에는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정보에 대해서 묻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남성이 이주여성을 선택했을 때 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김현미, 2007). 이때 통역자를 통해 듣게 되는 남성의 정보는 대개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 결혼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결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비적응자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남성과 성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다보니, 정보가 사실과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설동훈 외(2005)에 의하면, 배우자에 관한 정보 중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은 남편의 성격(3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남편의 소득(28%), 재산(21%), 직업(20%) 등 남편의 경제적 지위가 주로 지적되었다. 즉, 이주여성이 결혼전 배우자와의 결혼과정에서 받았던 정보가 결혼후 실제로 정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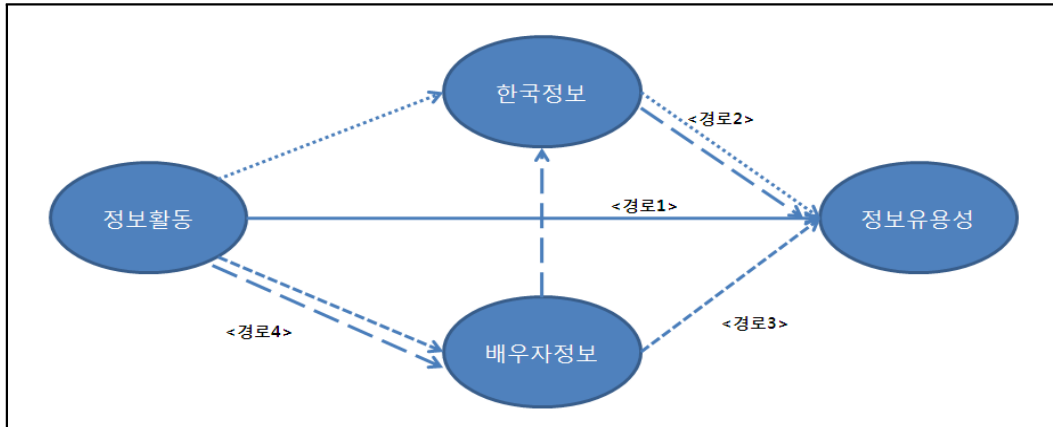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그들의 국제결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편을 소개받은 경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의 이주여성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 다음은 부모나 친인척 또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난 경우로 21%, 그리고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에 있어서도 17%가 사실과 다르다(설동훈 외, 2005)고 한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사전정보가 일치한다는 응답은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만난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일치한다가 71%에 이르렀다. 이것은 결혼중개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의 정보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한국이나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막연한 기대속에 결혼과 이주를 결정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여성의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이들이 한국에 와 보면 실제와 달라 좌절과 실망감이 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심각한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김오남(2006)은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이 단순하게 배우자의 경제적 요인보다 언어능숙함,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문화정체감 등 문화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나아가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4.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경로1>은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 <경로2>는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 정보수준을 매개로 하여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이고, <경로3>은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로 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경로4>는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하여 한국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활동과 배우자 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 정보수준이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그림 1>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경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이 모형에서 배우자 및 한국정보 수준이 실제로 매개하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그림 1>에 근거해서 4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 1) 정보활동은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1>
- 2) 정보활동은 한국 정보수준을 매개로 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경로2>
- 3) 정보활동은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로 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경로3>
- 4) 정보활동은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하여 한국정보수준에 영향을 주고, 정보활동과 배우자 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은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경로4>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51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다.

표본의 표집은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여성회관, 복지관, 결혼이민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발견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이나 유의표집을 이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센터나 회관 등에서는 최근에 입국하는 조사대상자나 특정 출신국에 편중되기 때문에, 표본이 국적별로 분석 가능한 사례에 도달할 때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사과정을 통해 조사여부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정보가 조사되지 않은 경우 추가접촉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런 확인 및 편집과정을 거쳐 적합한 설문지만을 코딩하여 결국 중국 조선족 19명, 중국 26명, 일본 27명, 베트남 94명, 필리핀 11명, 몽골 20명, 태국 26명, 인도네시아 20명, 기타 8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수집되었다.

<표 1> 결혼이주여성의 표본 현황

		거주지		전체
		부산	경남	
출신국	중국 조선족	15	4	19
	중국인	21	5	26
	일본인	8	19	27
	베트남인	58	36	94
	필리핀인	8	3	11
	몽골인	12	8	20
	태국인	18	8	26
	인도네시아인	20	0	20
	기타	7	1	8
전체		167	84	251

〈표 2〉 설문조사의 내용

설문 주제	항목	조사목적
사회인구학적 배경	출신국, 입국시기, 거주지, 연령, 교육수준, 형제유무, 태어나고 자란곳, 결혼전 직업활동 및 기간, 이주태도 및 이유	개인적 조건에 대한 이해
결혼중개자와의 관계	관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지, 만남의 횟수	결혼중개자 관계 및 친밀도 파악
주변이주자	유무, 한국정보내용	주변이주자 영향 파악
한국정보	정보경로, 수준 및 내용	한국정보취득 경로 파악
배우자정보	정보제공자, 정보수준 및 내용	배우자정보취득경로 파악
한국 및 배우자 정보수준	배우자 가족관계, 재산, 직업, 학력, 건강상태, 성격, 거주지 한국어, 날씨, 음식, 의례, 취업여건, 가족문화, 인종편견	한국 및 배우자 정보수준 파악
한국 및 배우자 정보 일치	배우자 가족관계, 재산, 직업, 학력, 건강상태, 성격, 거주지 한국어, 날씨, 음식, 의례, 취업여건, 가족문화, 인종편견	한국 및 배우자 정보 일치
한국 및 배우자 정보 유용성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여가 및 오락, 정치참여	한국 및 배우자 정보 유용성 파악
정보욕구	음식, 언어, 주거, 부부, 시부모, 자녀관계, 직업, 이웃, 건강, 여가, 복지, 국적, 종교	정보욕구 파악
전하고 싶은 정보	국적취득, 사회문화, 경제, 가족	전하고 싶은 정보 파악
전달하는 정보	날씨, 음식, 제사, 가족, 취업, 상품, 편견, 차별, 국적취득, 사회보장	전달하는 정보 파악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만족도 파악
한국이미지		한국이미지 결혼전/후 파악

2. 측정도구

1) 정보수준

정보수준은 한국으로 유입될 당시 배우자와 한국에 대한 정보수준을 의미한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재산, 직업, 학력, 소득, 건강상태, 성격 등에 대해서 (1)매우 잘 알고 있다 (2)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3)보통이다 (4)거의 몰랐다 (5)전혀 몰랐다고

나누어 번호에 기입하도록 한다. 점수는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9$ 이었다.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는 한국어, 날씨, 음식, 의례, 취업 여건, 가족관계와 역할, 인종편견 등에 대해서 (1)매우 잘 알고 있다 (2)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3)보통이다 (4)거의 몰랐다 (5)전혀 몰랐다고 나누어 번호에 기입하도록 한다. 점수는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2$ 이었다.

2) 정보유용성

정보유용성은 한국으로 유입될 당시 정보수준이 한국에서 실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유용성의 내용은 일상생활, 부부, 시부모, 자녀, 이웃 등 사회적 관계, 직업 및 사회활동, 여가 및 오락, 정치참여 등으로 나누어 (1)매우 도움이 되었다 (2)조금 도움이 되었다 (3)그저 그렇다 (4)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5)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6)해당없음으로 나누어 번호에 기입하도록 한다. 점수는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5$ 이었다.

3) 정보수집활동

정보수집활동은 결혼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접했는가를 의미하며, 이 변인은 대인 관계를 이용한 정보활동과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활동으로 나누었다.

대인관계를 이용한 정보활동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사람, 아는 사람, 직장동료로 나누어 각각 (1)자주 이용하였다 (2)조금 이용하였다 (3)보통이다 (4)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5)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등으로 나누어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활동은 TV, 인터넷, 라디오, 잡지 등으로 나누어 (1)자주 이용하였다 (2)조금 이용하였다 (3)보통이다 (4)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5)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등으로 나누어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동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62$ 이었다.

4) 통제변인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수집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국적(중국 조선족=1, 중

국=2, 일본=3, 베트남=4, 필리핀=5, 몽골=6, 태국=7, 인도네시아=8, 기타=9), 연령(21-29세=1, 30-39세=2, 40-49세=3), 학력(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 이하=2, 고등학교 이하=3, 전문대학이상=4), 입국시기(1986-1990=1, 1991-1995=2, 1996-2000=3, 2001-2005=4, 2006-2008=5)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또한 정보활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보수준, 정보유용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보활동이 한국 및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잠재요인별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관찰된 상관관계를 가장 잘 산출해내고, 최극의 추정치를 갖는 모집단의 parameter를 찾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각 잠재요인별로 높은 요인부하량으로 보이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계산하여 어떤 경로가 정보유용성의 영향을 설명하기에 더 설득력 있는지 파악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응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가장 낮은 사람이 18세이고 가장 높은 사람이 46세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0.6%로 가장 많고, 30대가 35.1%, 40대가 14.3% 순이며, 평균 연령은 30.56세였다. 평균 교육연수는 11.86년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퇴수준의 학력이다. 초등학교 이하는 9.6%였고, 전문대졸 이상은 33.1%였다.

전체 응답자 중 2000년 이전에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15.5%에 불과했고, 전체의 84.4%가 2001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결혼이주여성들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본 여성들이었으며, 이들 중 11.1%는 1990년대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적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이 인도네시아로 일하러 가서 연애결혼을 하여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 경우들이었다. 일본국적의 여성들은 198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던 통일교를 통한 결혼으로, 1990년대 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부산, 경남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 표 3 >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

배경변인		빈도	비율(%)
국적	중국 조선족	19	7.6
	중국 한족	26	10.4
	일본	27	10.8
	베트남	94	37.5
	필리핀	11	4.4
	몽골	20	8.0
	태국	26	10.4
	인도네시아	20	8.0
	기타	8	3.2
연령	21-29	127	50.6
	30-39	88	35.1
	40-49	36	14.3
입국시기	1986-1990	3	1.2
	1991-1995	7	2.8
	1996-2000	29	11.6
	2001-2005	101	40.2
	2006-2008	111	44.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	9.6
	중학교 이하	46	18.3
	고등학교 이하	98	39.0
	전문대 이상	83	33.1

전체 응답자 중 79.7%는 결혼하기 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들의 100%는 결혼전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태

국, 일본, 몽골 출신의 여성들 역시 각각 96.2%, 85.2%, 75.0%가 결혼전에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다른 국적의 여성들보다 결혼전 취업경험이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필리핀 출신 여성들은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혼하기 전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었는지는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4.2%가 이주계획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이주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 10% 정도 높았다. 결혼전 한국으로 이주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브로커를 접촉하는 등 실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적별로 결혼전 이주계획을 비교해 본 결과, 중국 조선족과 몽골 출신의 여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베트남, 중국, 일본 출신의 여성들 이었다. 본 조사에서 필리핀과 태국 그리고 대부분 연애결혼을 한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들은 결혼전 이주계획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 한국으로 이주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주한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0.6%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약 83%가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들이 제공한 정보내용을 다중응답으로 처리한 결과, “생활이 편하다”라는 정보 내용이 4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한국으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정보내용이었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2

배경변인		빈도	비율(%)
결혼전 고용상태	비취업	50	19.9
	취업	201	80.1
직종	전문직	18	10.7
	사무직	43	25.4
	판매서비스직	49	29.0
	농업	55	32.5
	기타	4	2.4
이주 계획	없다	136	54.2
	있다	115	45.8
이주 노력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28	24.3
	조금 노력했다	36	31.3
	보통이다	32	27.8
	거의 노력을 안했다	9	7.8
	전혀 노력을 안했다	10	8.7
노력 내용	에이전시 접촉	3	N= 115
	한국방문	2	
	한국어 교육	73	
	기타	37	

이주 이유	본국에서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17	7.5
	돈을 벌기 위해서	23	10.1
	무조건 본국을 떠나고 싶어서	5	2.2
	가족과 친척의 권유로	18	7.9
	본국보다 경제적으로 잘살아서	49	21.6
	가족부양을 위해서	34	15.0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서	23	10.1
	한국인 및 한국에 대한 호감 때문에	40	17.6
기타	18	7.9 <다중응답>	
주변 이주자	있다	152	60.6
	없다	99	39.4
정보 제공	있다	149	83.7
	없다	29	16.3
정보 내용	한국으로 가면 일자리를 얻기 쉽다는 것	14	9.2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	36	23.7
	생활이 편하다는 것	65	42.8
	살기 어렵거나 힘들다는 것	12	7.9
	사기당하기 쉽다는 것	4	2.6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8	5.3
	기타	13	8.6

2. 정보활동, 정보수준, 정보유용성 간의 관련성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와 한국에 대한 정보량 평균은 각각 3.50(5.0만점), 2.85(5.0만점)로 보통보다 높은 편이었지만, 배우자에 대한 정보보다 한국에 대한 정보량이 적었다. 배우자와 한국에 대한 정보수준 평균은 각각 3.47(5점 만점), 2.82(5점 만점)로 오히려 정보량보다 자신의 정보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한국에 관한 정보일치 평균은 4.07(5점 만점), 3.87(5점 만점)로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된 정보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정보가 한국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2.79(5점 만점)로 보통보다는 높으나, 정보량과 정보일치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즉,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정보가 실제 생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5〉 정보량, 정보수준, 정보일치, 정보유용성 비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량	배우자	251	3.50	1.34
	한국	251	2.85	1.30
정보수준	배우자	251	3.47	1.28
	한국	251	2.82	1.23
정보일치	배우자	251	4.07	1.33
	한국	251	3.87	1.43
정보유용성		251	2.79	1.35

〈표 6〉은 각 잠재변수 간의 관련성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주전 정보활동은 배우자 정보수준, 한국정보수준, 정보유용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배우자 정보수준도 한국 정보수준, 정보유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한국정보수준도 정보유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6〉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정보활동	배우자정보수준	한국정보수준	정보유용성
정보활동	1			
배우자 정보수준	.155(*)	1		
한국 정보수준	.223(**)	.516(**)	1	
정보 유용성	.185(**)	.392(**)	.510(**)	1

*p<.05, **p<.01, ***p<.001

〈표 7〉에서 정보활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배우자 정보수준, 한국생활 정보수준, 정보유용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주전 정보활동의 유무는 한국정보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배우자 정보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주전 정보활동의 유무가 한국생활 정보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배우자 정보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주전 정보활동 유무는 정보유용성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 및 한국정보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정보활동 유무에 따른 배우자와 한국의 정보수준, 정보유용성 비교

	정보활동여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한국 정보수준	있다	152	20.91	6.803	3.477**
	없다	91	18.00	5.428	
배우자정보수준	있다	153	24.88	7.227	.957
	없다	92	23.97	7.146	
정보유용성	있다	158	7.55	3.830	3.367**
	없다	93	5.97	3.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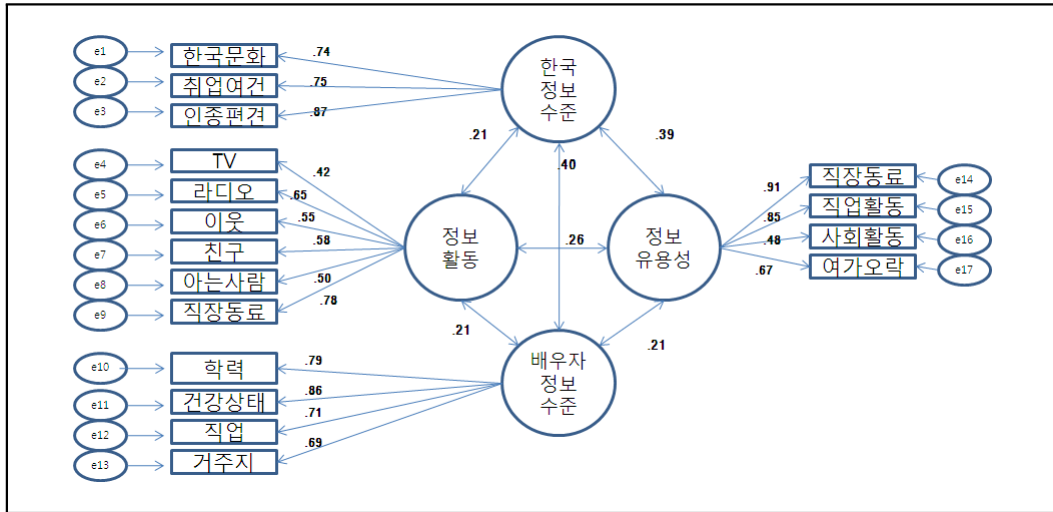
*p<.05, **p<.01, ***p<.001

3. 측정모형의 분석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사용된 3가지 변수의 각각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로 제시되는 추정치는 요인적재량으로 각 잠재변수 당 하나의 지표(측정변수)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을 1로 고정하였고, 이는 준거지표가 된다. 준거지표는 잠재변수에 대해 다른 지표들도 그 지표와 동일한 측정단위를 제공하도록 잠재변수를 척도화한 것이다(배병렬, 2007).

우선 전체 측정모형을 확정하기에 앞서, 개별 잠재변인의 측정도구를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내적일관성 조사를 거친 후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를 통해 적합도지수를 충족하는 항목만을 선정하고, 또한 측정도구의 수정을 위해 표준화 residuals의 절대값이 4보다 큰 항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정보활동에서는 잡지, 가족을 통한 정보활동이 제외되어, TV, 인터넷, 라디오, 친구, 이웃, 아는 사람, 직장동료를 통한 정보활동만이 남게 되었다($\chi^2=9.941$, d.f.=14, p=.132, RMR=.065, GFI=.977, NFI=.935). 한국정보수준에서는 한국문화, 인종편견, 가족문화, 취업여건 항목만이 남게 되었고($\chi^2=4.217$, d.f.=2, p=.121, RMR=.027, GFI=.992, NFI=.990), 배우자 정보수준에서는 가족관계, 직업, 학력, 건강상태, 거주지 항목만이 남게 되었다($\chi^2=12.527$, d.f.=5, p=.028, RMR=.042, GFI=.980, NFI=.981). 정보유용성 항목에서는 일상생활, 배우자, 시부모, 자녀와의 관계, 이웃관계, 정치참여 항목이 제외되어 직장동료와의 관계, 직업활동, 사회활동, 여가 및 오락 항목만이 남게 되었다($\chi^2=7.005$, d.f.=2, p=.030, RMR=.045, GFI=.987, NFI=.985).

<그림 2> 측정모형 요인적재량과 적합도



$\chi^2=183.787$ d.f.=113 P=.000 RMR=.086, GFI=.920, RMSEA=.050

위와 같이 개별 잠재요인의 측정모형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전체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인적재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83.787$ d.f.=113 P=.000으로 나타났다. 이는 χ^2 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 중 χ^2 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학식 외, 2008:33). 다른 적합도 지수인 GFI도 .920으로 나타나 기준치 (>.90이 바람직)를 충족시켰으며, RMES도 .050로 적합한 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RMES는 <.05이하가 아주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을 충족하면 자료를 잘 적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7: 이학식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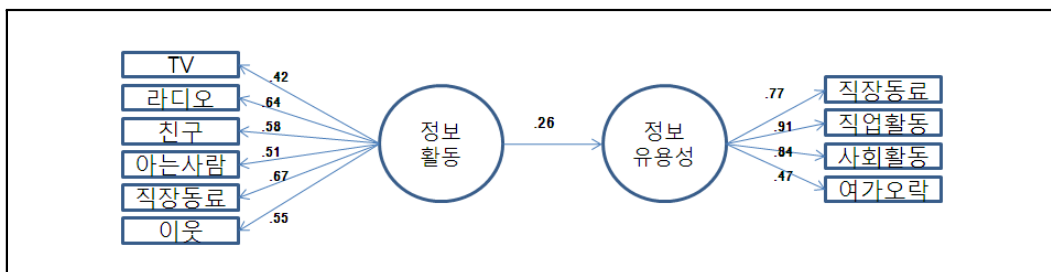
<표 8>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
정보활동	아는사람	1.000	.502		
	직장동료	.767	.778	6.329	***
	이웃	.659	.546	5.741	***
	친구	1.237	.584	5.957	***
	라디오	.710	.649	6.262	***
	TV	1.082	.424	4.891	***
정보 유용성	직장동료관계	1.000	.906		
	직업활동	1.165	.849	14.808	***
	사회활동	1.132	.480	14.181	***
	여가및오락	.600	.666	7.465	***
한국 정보수준	의례문화	1.000	.743		
	취업여건	.950	.747	11.023	***
	인종편견	1.122	.873	11.750	***
배우자 정보수준	거주지	1.000	.694		
	건강상태	1.241	.860	11.515	***
	학력	1.170	.788	10.922	***
	직업	.950	.708	9.975	***

4.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정보수준과 배우자정보수준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분석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 정보수준, 그리고 정보유용성에 대해 <그림 1>에서 설정된 영향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림 3>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기본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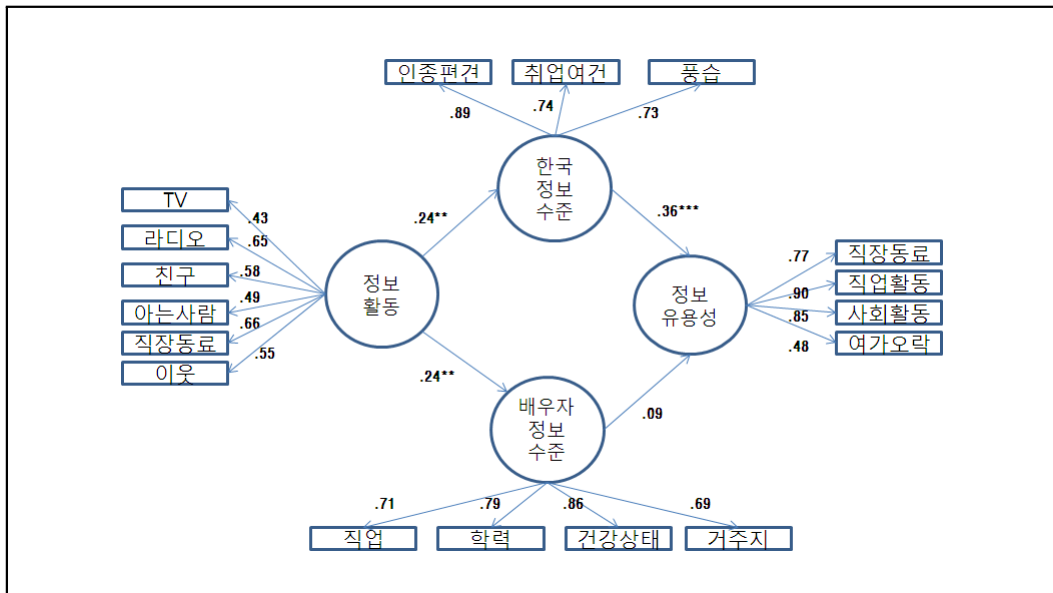


$\chi^2=54.915$ d.f. =34 p=.013 RMR=.072 GFI= .958 NFI=.930 MSEA=.050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에서 경로분석결과 <그림 3>과 같이 경로계수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정보활동에 대한 정보유용성은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했을 때 경로계수가 .26으로 .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전에 정보활동을 많이 할수록 정보유용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이주전 정보활동이 실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정보수준과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했을 때 정보유용성에 대한 경로계수를 측정하였다.

<그림 4>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매개모형 분석



$\chi^2 = 214.308$ d.f. = 115 p = .000 RMR = .140, GFI = .908, NFI = .873 RMSEA = .059

<표 9> 잠재변인간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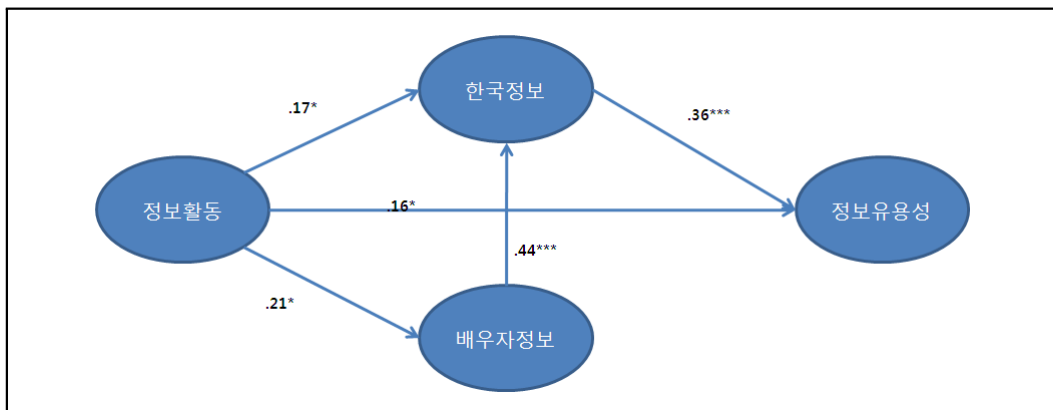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P
한국정보수준 ← 정보활동	.345	.242	2.855	.004
배우자정보수준 ← 정보활동	.326	.235	2.787	.005
정보유용성 ← 한국정보수준	.408	.360	4.867	***
정보유용성 ← 배우자정보수준	.106	.091	1.332	.183

<그림 4>는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정보수준과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했을 때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구조모형이다. <그림 3>에서 이주전 정보활동에서 정보유용성의 직접적 관계가 유의적이었고, <그림 4>에서 정보활동 → 한국정보수준, 한국정보수준 → 정보유용성은 각각 .01, .001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그런데 <그림 4>에서 정보활동 → 배우자정보수준은 .01수준에서 유의했으나, 배우자정보수준 → 정보유용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전 정보활동은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한국정보수준의 매개를 통해서도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주전 정보활동은 배우자정보수준을 통해서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1, 가설 3은 지지되었지만,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5. 모형의 발견

다음은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했을 때 한국정보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다시 이주전 정보활동과 배우자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분석이다.

<그림 5> 정보활동, 한국정보수준, 배우자정보수준, 정보유용성간의 경로분석



$$\chi^2 = 149.069 \text{ d.f.} = 99 \text{ P} = .000 \text{ RMR} = .084 \text{ GFI} = .930, \text{ RMSEA} = .045$$

〈표 10〉 잠재변수간 경로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P
배우자 정보수준 ← 정보활동	.283	.207	2.497	.013
한국 정보수준 ← 정보활동	.269	.173	2.056	.040
한국 정보수준 ← 배우자 정보수준	.494	.436	5.225	***
정보유용성 ← 한국 정보수준	.371	.358	4.077	***
정보유용성 ← 정보활동	.260	.162	2.026	.043

〈그림 5〉에서 정보활동 → 정보유용성은 .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활동 → 배우자 정보수준, 정보활동 → 한국 정보수준은 각각 .05수준에서 유의미했고, 배우자 정보수준 → 한국정보수준, 한국정보수준 → 정보유용성도 각각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전 정보활동은 한국정보수준의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부분매개). 그리고 정보활동은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할 때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정보활동과 배우자 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할 때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부분매개)

따라서 이주전 정보활동은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과 이주전 정보활동은 한국정보를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주전 정보활동이 배우자정보수준을 매개하여 한국 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보활동과 배우자 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표 11〉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효과 분석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정보활동 → 배우자 정보수준	.283	283	-
정보활동 → 한국 정보수준	.408	269	140
정보활동 → 정보유용성	.411	260	152
배우자 정보수준 → 한국정보수준	.494	494	-
배우자정보수준 → 정보유용성	.183	-	.183
한국정보수준 → 정보유용성	.371	371	-

<표 11>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주전 정보활동이다(총효과=.411). 이주전 정보활동은 정보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직접효과=.269),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해서 간접적으로도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간접효과=.140). 이에 비해 배우자 정보수준은 정보유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한국정보수준을 통해서 정보유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간접효과=.183). 그리고 한국정보수준은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정보유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직접효과=.371). 이러한 결과는 결혼전 정보수집활동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그것이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할 때 그 유용성이 더 커진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이주전 정보수집활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한국 및 배우자 정보수준, 정보유용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정보수준과 배우자정보수준이 매개하는지, 매개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전 정보활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 간에 한국 및 배우자 정보수준, 정보유용성 정도를 비교했을 때, 배우자정보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정보수준과 정보유용성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에 관한 정보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또한 이러한 정보활동이 한국에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이주전 정보활동이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정보수집활동이 배우자의 정보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보활동과 배우자 정보수준에 영향을 받은 한국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

다. 그러나 정보활동이 배우자 정보수준을 매개하여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주전 정보활동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접적으로 한국정보수준을 높여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유용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배우자 정보수준은 직접적으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국 정보수준을 매개할 때에만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우자 정보수준만으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 발신체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지역에 다국적 언어로 된 한국정보를 송출하거나,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정보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의 방법에 따라 한국생활을 준비하는 정도가 다르고, 준비를 하더라도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주전 정보활동이 막상 한국에 와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와 한국생활정보를 지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전 정보활동이 한국생활과정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보활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아, 정보의 질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출신국에 따라 한국 정보가 어떻게 수신되고 있으며, 그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신하는 정보의 내용과 수신된 정보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유용성을 가족 외 영역, 즉, 사회활동의 측면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보유용성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이주전 정보활동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51명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결혼이주여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집 3호. 63-106.
- 김용학. (2003).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한건수. (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한국문화인류학』 39(1):3-28.
- 김이선 · 김민정 · 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 통권 제70호. 10-37.
- 김현숙.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파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 민경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경태 · 설동훈 · 이상철. (1999). “국제노동력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한국사회학』 제33집. 819-849.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 설동훈. (1996).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 설동훈 · 김윤태 · 김현미 · 윤희식 · 이해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 (2005).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 · 윤희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Vol. 24. No. 2.
- 양순미.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 제16집 2호. 151-179.
- 양옥경 ·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26. 79-110.
- 양옥경 · 김연수 ·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229-251.
- 윤희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 이제환 · 이연옥 ·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 273-295.

- 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학지사.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제60집.
- 하밍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lie Russell Hochschild. (2003). *The Commercialization of Intimate Life : Notes from home and w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tman, Efreda A. (1996).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47. 193-206.
- Constable, Nicole. (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Pen Pales, Virtual Ethnography, and “Mail Order” Marri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ran, Daniel Flores. (1980). *Latino Communication Patterns*. New York : Amo Press.
- Sarsby, J. (1983). 『낭만적 사랑과 신화』. 민음사.
- Sassen, Saskia,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York: The New Press.
- Wang Hong-zen and Shu-ming Chang. 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0(6):93-116.